

지역 협력·가공 차별화...지리산 대표 청년 임업인 ‘우뚝’

전남도 8월 임업인 문준호 임업후계자
3대째 임업...임산물 가공품 개발 앞장
‘두릅더비트’·‘하루한뽕’ 선행 물량 완판

전남도는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구례 토지면에서 두릅, 고사리, 읍나무, 초피 등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청년 임업인 문준호 임업후계자를 선정했다. <사진> 문준호 임업후계자는 3대째 이어진 가업을 잇고자 고향 구례 지리산 피아골 자락 원기마을에 귀촌해 임업경영체 ‘지리담’을 운영하고 있다. 귀촌 초기 농산물과 임산물 관련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며 지리담 운영을 겸업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계절별

다양한 임산물 생산과 가공을 목표로 4ha 면적에 봄철 두릅·고사리, 여름철 초피, 가을철 꾸지뽕, 겨울철 고로쇠 수액 등을 생산해 연간 약 1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했다. 정착 과정에서 초기 자금 마련, 임산물 인지도 부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어려움을 ▲지리산 피아골의 청정임산물 재배와 웰니스 상품 개발 등 ‘자연 요소’ ▲구례 청년 임업인들과 젤라또와 양갱 생산 등 ‘지역 협력’ ▲두릅 분말과 비트 분말을 넣은 ‘두릅 더비트’와 꾸지뽕 콜라겐 젤리 ‘하루한뽕’ 개발 등 ‘가공 차별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 활용과 지역판매장 입점 등 ‘유통 혁신’으로 극복했다. 그 결과 안정적 소득 창출과 지리산대표 청년 임업인으로 정착했다. 특히 첫 임산물 가공품인 두릅과 비트 분말을 넣은 과자 ‘두릅 더비트(드랍더빗)’, 꾸지뽕 콜라

겐 젤리 ‘하루한뽕’은 자체 개발로 선행 제조 물량을 완판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아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구례군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청년 임업인 리더로도 활약하고 있다. 문준호 임업후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 임업인과 힘을 모아 시장 수요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임산물 가공상품을 확대 생산할 계획”이라며 “청년과 기성세대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이 있는 임업인협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남도의 우수한 임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청년 임업인과 귀산촌 지원 확대를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임업인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 재배 기반과 생산장비 보완,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 올해 200억원의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농협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를 찾아 위로와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 본부의 수해 복구 현장(왼쪽)과 전남지역 본부의 침수 피해 현장 모습. <농협광주·전남 지역본부 제공>

지역 농협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광주본부, 자발적 참여 집기 철거 진행
전남본부, 운남면 침수 주택 농민 위로

농협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위로와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6일 “전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분량농협 관할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지역본부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폭우로 침수된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내 집기 철거와 유출된 상토를 수거하는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지역 곳곳의 농가들은 하우스 침수, 농작물 피해, 토사 유출 등 심

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손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지역본부는 수해 복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일손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본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향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전역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농업인의 삶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본부도 지난 4일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과 장지은 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장이

무안군 운남농협을 찾아 농경지 및 주택 등 침수 피해현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운남면은 주택 및 시설하우스와 농경지(벼, 콩, 깨 등) 침수 등 크고 작은 농업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폭우로 인해 전남은 전날 기준 벼 785ha, 대과 170ha, 콩 140ha, 참깨 20ha 등 총 1천115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8개소 농축협의 시설물이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입었다. 이광일 본부장은 “지난 7월 중순의 집중호우에 이어 또다시 우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예기치 않게 큰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농협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담양 봉산농협, 폭우 피해지역 벼 병해충 드론 방제

담양군 봉산농협은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담양군 내 침수 및 습해 피해를 입은 수도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약 80ha 규모의 논에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집중호우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벼 도열병과 흑점나방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봉산면 삼지마을 방제 작업 현장에는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이현 농정지원단장, 김방섭 봉산농협 조합장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방

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방섭 봉산농협 조합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 조합원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이번 공동방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병해충 확산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협과 협력해 수해 극복과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농협 ‘NH모두안심재해보험’ 1호 가입 행사

최남휴 조합장 첫 가입

순천농협은 6일 “최근 순천농협 파머스지점에서 ‘NH모두안심재해보험’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첫 가입자로 직접 참여해 조합원과 고객에게 재해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H모두안심재해보험’은 직업, 병력, 응급실 내원 이력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3무(無) 보험으로, 재해사망·장해·응급실 이용 등 일상 속 재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40세 기준 월 보험료는 남성 1천942원, 여성 1천122원으로 저렴한 비용 대비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순천농협은 이번 1호 가입 행사를 계기로 현장 상담을 확대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조합원과 고객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육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